



오산농협, 조합원 소형농기계 지원

오산농협(조합장 채병덕)은 10일 오산농협 육묘장에서 2021년도 조합원 소형농기계 지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영농규모 5ha 이하의 조합원에게 비료살포기 70대를 전달하였다.

이번 사업은 작년부터 오산농협에서 청법이라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촌고령화에 따라 농기계구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채병덕 오산농협 조합장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과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영농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장양원 기자

‘강물처럼 살아온 인생 2막’

김연식 부안군의원, 월간 ‘문학공간’ 신인문학상 당선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은 월간 ‘문학공간’에서 공모한 수필 부문에 ‘강물처럼 살아온 인생 2막’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었다.

김의원은 지난 10년간 공직생활이 인생 1막이었다면, 퇴직 후 기초 의회 군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 인생 2막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긍정과 부정’의 부제를 가지고 그간 술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짧은 수필로 인생을 표현하였다.

심사위원들은 ‘내면 의식 속에 투영되는 삶의 모습

은 나름대로 진실한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였고, 앞으로 삶의 연륜이 물어나는 개성 있는 수필을 지속적으로 써나가기 바란다’며 당선을 축하했다.

김의원의 당선 소감에서는 ‘지난 3년의 군의원 생활은 매일 매일 배움의 시간이었고, 뜻하지 않게 신인문학상 당선의 영광에 몸돌리를 모르겠으며 몸에 베어있는 긍정 마인드가 크나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고 기뻐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긍정으로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모든 일이 더 잘 되리라는 확신이 앞선다’고 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제8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민주당 원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우협회 임실지부, 한우곰탕 360팩 전달

(사)전국한우협회(회장 황은석) 임실군지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우곰탕 360팩을 기부했다.

군에 따르면 한우협회 임실군지부는 지난 7일 심민군수를 만나 “식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한우곰탕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안타깝게 여긴 한우협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

한우협회 임실군지부는 해마다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고 있어 각종 사회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청소년수련관 신경숙 씨,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기탁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 중인 신경숙 씨가 10일 정읍시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시민장학재단에 300만원을 전달했다.

5월 말 퇴직을 앞둔 신경숙 씨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며 청소년의 윤리를 육성과 지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회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기타로 장학금은 정을

시민장학재단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꿈 실현을 위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경숙 씨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며 “재능과 실력이 있음에도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이사장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학생들에게 꿈 실현을 위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우협회 무주지부, 5월 가정의 달 한우곰탕 기탁

무주군은 10일 전국한우협회 무주지부에서 시판용 한우곰탕 12박스(1박스 30개)를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은 전국한우협회 무주지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취약 계층 아동 가정에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이뤄진 것으로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김명섭 회장은 “이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지만 주변에는 가정환경이나 여건상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코로나9로 지치고 5월 가정의 달이라 더 힘들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힘을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보절증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일 보절증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늘 배우면 내가 살린다’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체험워주 교육과 기도폐쇄 환자에게 실시하는 허임리하법 및 화재 시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해 긴박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교育으로 안전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한 119신고요령, 화재대피요령, 소화기 체험, 원강기 촉용실습 등 다양한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했다.

또 한편 소방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소방관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박덕규 서장은 “응급처치 등 소방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론보다는 체험 위주의

고장경찰, 이륜차 운전자 사고 예방 홍보 · 단속

고장경찰서(서장 김현익)가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섰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와 농사철로 인해 노인층이 이륜차를 이용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 활동으로 사고 예방을 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장경찰서는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에 앞서 관내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과속금지에 대해 업주에게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다. 또한 마을 안내방송 등 비대면식으로 올바른 안전모 착용법, 과속금지 등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장=김명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